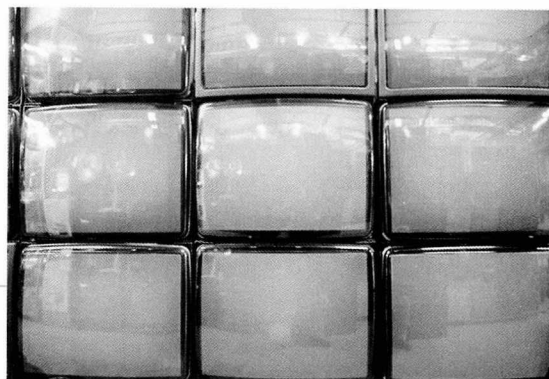


텔레비전은 우리 삶을 투영하는 '아비투스'

나에게 텔레비전은 무엇인가

원용진 | 서강대 신방과 교수



일전에 펴낸 《텔레비전 비평론》(한울)의 서문이 파격적이었던 모양이다. '지식인들은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해댄다'는 게 내용의 요지다. 이를 두고 언론이 범석을 떨었다. 먼저 연합통신이 이를 크게 기사화했다. 각 신문들의 '말말말' 코너들은 기사 내용을 부지런히 퍼 날랐다. 라디오의 아침 프로그램 몇 군데서도 인터뷰 요청을 해왔다. 덕택에 뜻하지 않게 무료 홍보 혜택을 봤다. 하지만 뒷맛은 영 개운치가 않았다. 너무 선정적이었나 하는 일말의 후회도 밀려왔다. 텔레비전 많이 보는 것이 자랑은 아닌데 너무 내세운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도 떠올랐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말하는 풍토는 막자는 나름의 결론은 아직까지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

나는 텔레비전밥을 먹는 텔레비전 식구 사실 텔레비전과 나의 인연은 유별나다. 보기, 비평, 논문쓰기, 책 내기, 텔레비전 강의, 출연, 프로그램 진행, 시청자 운동, 제작자들과의 대화, 최근의 제작 시도 등등 텔레비전과 관련해서는 전방위적 인연을 맺어왔다. 기름밥 먹는다는 택시기사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텔레비전밥을 먹는 셈이다. 때론 텔레비전에 향하는 욕지거리가 입 근처에 오르기도 하지만 될 수 있는 한 자제하곤 한다. 텔레비전밥을 먹으면서 밥상을 내팽개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심정으로 말이다. 비록 텔레비전 바깥에 있지만 한번도 텔레비전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텔레비전밥을 먹는 텔레비전 식구. 텔레비전과 나의 인연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표현처럼 보인다.

텔레비전에 대한 외면 혹은 무차별적 공격에 대해 손을 내밀어 저어대는 것은 텔레비전밥을 먹는 텔레비전 식구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대부분은 텔레비전과 식구는 아닐지라도 먼 친척쯤은 된다. 혹 그것이 끊고 싶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연루돼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빨리 끊어버리라고 욕박지르는 듯한 부라림을 보면 때론 철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텔레비전은 일종의 사회적 아비투스다. 우리 살림살이들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는 의미다. 제대로 들여다보노라면 우리 살림살이가 얼마나 고단한지, 피폐한지, 피곤한지 알게 된다. 펼쳐지는 만화경을 뚫어지게

바라보면 텔레비전 바깥의 고단한 삶들을 행복하도록 교정할 각오를 다질 수도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 모두가 텔레비전의 먼 친척쯤 된다면 그 같은 노력은 필요한 것 아닐까? 나의 불평은 그 같은 노력의 부족을 탓하는 것이었다.

텔레비전 예비 친척들에게 격려 아끼지 않아 텔레비전을 멀리하라는 욕박지름에도 아랑곳없이 먼 친척 관계에 만족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텔레비

전밥을 먹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전에 없이 늘고 있다. 대학에서 그런 기운을 찾기관 어렵지 않다. 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방송작가의 꿈을, 용모와 목소리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아나운서를, 특별한 취미를 가진 학생들은 그에 걸맞는 다큐멘터리 스타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비디오 저널리스트는 선망 직종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미 텔레비전밥을 먹고 있으며 가까운 친척으로 자처하고 나선 나로서는 그 같은 욕망들에 대해 말을 아끼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아비투스인 텔레비전은 이런저런 점에서 절망에 가까워 보인다고 엄살을 먼저 떨어 보인다. 그리고 만약 텔레비전밥을 먹기로 작정했다면 제대로 한번 챙겨 먹어보라고 이러저러한 명제와 이론들을 들먹이며 꼬드긴다.

어떤 촌수로 이 묘한 인연을 설명할 수 있을까?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절망적인 아비투스라고 비난도 하고, 예비 친척들에게는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격려하는 나는 텔레비전과 몇 촌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텔레비전은 어쩔 이런 나를 두고 앞뒤를 못 맞춘다며 족보에서 이름을 파낼지도 모를 일이다. 그들의 족보와는 다른 나의 족보 버전에는 텔레비전은 분명 가까운 친척 결혼식 때 폐백받을 정도의 위치에 놓여 있다. 나의 족보 버전이 더 옳음을 굳게 믿고 있다. 오래 전부터 텔레비전 버전의 족보에 실려왔던 인사들의 이름을 파내고 새롭고 유능한 식구들의 이름을 더 많이 올리려 분주히 움직인다. 텔레비전밥값은 해야겠기에. ■

원용진 교수는 서강대 신방과와 위스콘신대를 졸업하고, 현재 서강대 신방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텔레비전 비평론》《한국언론민주화의 진단》《대중문화의 패러다임》《광고문화비평》 등을 펴냈다.